

# 이 음악 보내줄까?

7차시는 음악저작물과 관련된 저작물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되었다. 음악저작물 관련 저작권이 우리 학생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알아보는 가운데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 ■ 학습 목표

- ▶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의미를 알 수 있다.
- ▶ 음악저작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 ■ 준비물

- ▶ 학생용 활동 자료, 필기 도구, 필요한 경우 색 사인펜 또는 색연필
- ▶ 컴퓨터, TV 또는 빔 프로젝터

## ■ 유의 사항

- ▶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학생들의 일상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깨닫도록 한다.
- ▶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련 법 조항을 설명하고 주입하는 방식보다는 관련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 법이란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의 산물인 만큼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규정도 변화가 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지도한다.
- ▶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경우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음을 깨닫도록 지도한다.



## ■ 활동 과정

이 포스터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 네 개의 포스터 사진을 보여 주고 그 포스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추정해 보도록 한다.



이건 불법?

- 음악저작권 관련 사례를 분석한다.
- 분석한 사례가 불법인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둠별로 토의한다.



토의 결과  
모아보기

- 모둠별로 토의한 결과를 모아 전체의 의견을 알아본다.



무엇이  
문제일까?

- 음악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지 생각해 본다.



저작권 보호  
포스터  
완성하기

- 도입 단계에서 보았던 포스터를 다시 보고 포스터의 빈 부분에 적합한 문구를 넣어본다.



## ■ 활동 내용

### ▶ 들어가기

1. 학생들을 4~6인의 모둠으로 편성하고 모둠 단위로 좌석을 배치한다.
2. 학생들에게 네 개의 포스터를 보여준다. 〈학생용 활동 자료 1〉을 배포하거나, 컴퓨터와 TV를 이용해서 전체에게 보여줄 수 있다.
3. “이 네 개의 포스터가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4. 학생들의 대답을 바탕으로 의견을 정리하면서 이번 차시에 음악저작물과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게 됨을 알려주고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 진행자를 위한 팁

– 음악저작물

음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그것이 악기에 의한 것이든 사람에 의한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악곡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가사도 보호된다. 김소월의 시가 가곡으로 작곡된 경우에는 음악 저작물이 된다. 음악저작물의 경우에, 그것이 반드시 악보에 그려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흥적으로 연주하거나 부르는 노래도 음악저작물에 해당된다.

### ▶ 실행하기

#### 이건 불법?

1. 4~6명을 1조로 모둠을 구성하고, 모둠별로 〈학생용 활동 자료 2, 3, 4〉를 나누어준다.
2. 학생들은 모둠별로 세 개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토의한다.
3. 토의 결과를 각 학생용 활동 자료에 적는다.

#### 진행자를 위한 팁

·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든 모둠이 세 개의 사례 분석을 하도록 하지 말고 모둠별로 1~2개의 사례만을 대상으로 활동하도록 과제의 양을 조절해 줄 수 있다.

#### 토의 결과를 모아보기

1. 〈학생용 활동 자료 2〉에 대한 토의 결과를 발표한다.



생각 : 불법이다.

이유 : 유료로 다운받았다는 것은 내가 듣기 위한 것이지 남에게 줄 수 있는 권리까지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생각 : 합법이다.

이유 : 내가 돈을 주고 산 자료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생각 : 합법이다.

이유 : 친구에게 선물로 주는 정도는 법도 인정해 줄 것이다.

생각 : 불법이다.

이유 :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라면 돈을 주고 CD를 사서 선물하는 것이 옳다.

2.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은 <학생용 활동 자료 2>의 사례를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3. <학생용 활동 자료 3>에 대한 토의 결과를 발표한다.

생각 : 불법이다.

이유 : 학교 방송도 방송이다. 사용료를 내거나 무료로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생각 : 합법이다.

이유 : 음악 CD를 돈 주고 구입한 만큼 그것을 어디에서 트는지는 산 사람 마음이다.

생각 : 합법이다.

이유 : 방송반 활동도 수업의 연장이라고 생각한다. 돈 벌려고 틀어주는 것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생각 : 불법이다.

이유 : 혼자 들으라고 판 음악을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듣는 것은 곤란하다.

4.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은 <학생용 활동 자료 3>의 사례를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5. <학생용 활동 자료 4>에 대한 토의 결과를 발표한다.

생각 : 불법이다.

이유 : 인터넷에 올리면 다른 사람도 마음대로 퍼갈 수 있게 된다. 그런 권리까지 판 것은 아니다.

생각 : 합법이다.

이유 : 어디서 퍼 왔지만 밝히면 된다.

6.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은 <학생용 활동 자료 4>의 사례를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 무엇이 문제일까?

1. “이렇게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법으로 규정하여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2. 학생들의 대답을 바탕으로 음악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 저작권 보호 포스터 완성하기

1. 도입 단계에 제시되었던 <학생용 활동 자료 1>로 돌아간다.
2. <학생용 활동 자료 1>에 제시된 포스터의 빈 칸에 넣을 문구를 생각해서 적는다.
3. 이번 차시에 수업한 음악저작권과 관련지어 빈 칸에 적합한 문구를 작성하게 한다.

(가) 저작권 침해, 당신도 도둑입니다.

음악에도 저작권이 있어요.

음악을 사랑하는 당신, 저작자의 권리도 사랑해 주세요.

(나) 저작권 침해, 지금은 공짜 같지만, 결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성급히 잡아먹는 행동입니다.

거위를 잡아먹기보다는 맛있는 먹이를 주고 매일 보살펴 주어 황금알을 얻는 편이 더 좋지 않나요?

### ▶ 마무리하기

1. 포스터 빈 칸에 들어갈 말을 모둠별로 발표한다.
2. 이 단원을 마치며, 교사는 학생들에게 음악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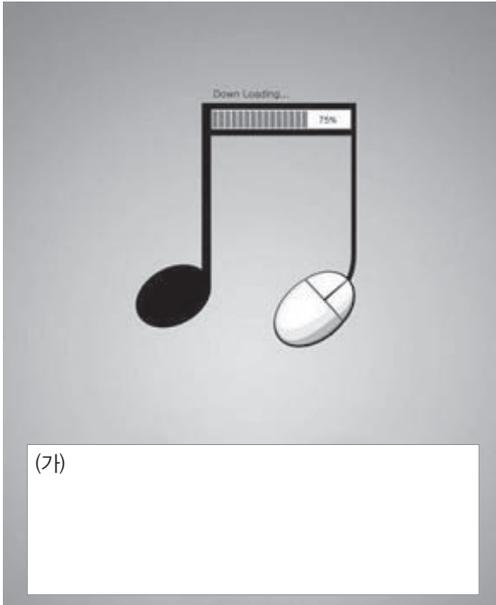


# 포스터 완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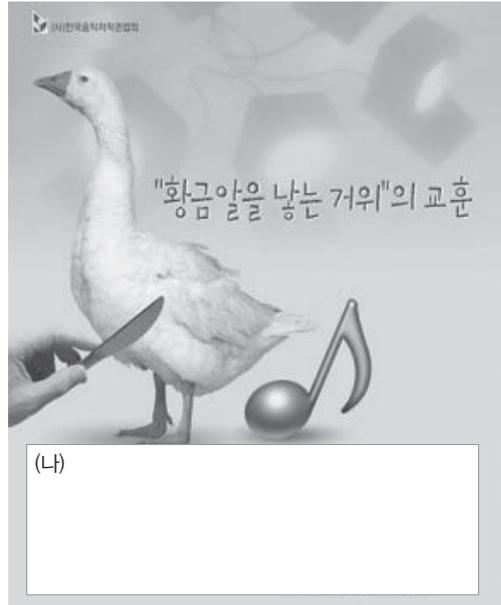
학생용 활동 자료 1

\_\_\_\_\_ 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_\_\_\_\_

다음의 포스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제공: KT 문화재단



제공: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KT 문화재단



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



# 이건 불법? (1)

학생용 활동 자료 2

\_\_\_\_\_ 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_\_\_\_\_

희망이가 승리에게 선물한 CD는 불법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함께 적어 보세요.

희망이는 고민에 빠졌다. 새 학년이 되어 새로 사귄 멋진 친구 승리! 승리가 없는 학교 생활은 이제 상상할 수조차 없다. 승리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은데, 뭔가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승리가 좋아하는 노래가 희망이가 좋아하는 것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앗! 우리는 코드까지 맞아? 정말 하늘이 내려 준 친구 사이라니까. 좋아, 그렇다면 끝내 주는 선물을 만들어 주자.

희망이는 그 동안 컴퓨터에 유료로 다운받아 두었던, 아시아의 스타 '폭풍'의 노래와 인기 그룹 '전설'의 노래를 잘 정리해서 CD로 구워 승리에게 선물했다. 멋진 CD 표지를 제작하여 완성도를 더한 것도 희망이의 센스! "고마워, 희망아." 승리가 감동해서 거의 울 지경이 되었는데, 옆에서 한 친구가 알뜰하게 끼어 든다. "너 그거 저작권 침해인 것 알아?" "뭐?" "불법이라고, 불법! 넌 도둑질해서 친구한테 선물하니?"

Large empty rounded rectangle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 이건 불법? (2)

학생용 활동 자료 3

\_\_\_\_\_ 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_\_\_\_\_

학교 구내 방송에서 요즘 유행하는 음악을 방송하는 경우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함께 적어 보세요.

희망이와 승리는 단짝 친구. 동아리 활동도 언제나 함께 한다. 희망이와 승리는 방송반의 기대를 한 몸에 모으는 아나운서와 PD. 그런데, 이들이 고민에 빠졌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승리의 삼촌으로부터 방송으로 음악을 틀어줄 때마다 그 노래에 대한 저작권자에게 노래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다.

“정말요? 정품 CD들을 사서 틀어주는 것인데도요? 만약 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절대 안 되지. 그건 마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과 똑같단다.”

희망이와 승리는 동시에 생각에 잠겼다. 우리 학교 방송반이 지난주에 틀어 준 최신 가요만 해도 몇 곡 이더라? 생각하니 허걱, 숨이 막혀온다. 우리는 돈이 없는데…….

학교 구내 방송에서 방송한 것도 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적어도 무료로 틀어도 된다는 허락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 학교에서 알아서 이미 계약을 해 놓았을까?

Blank writing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for student responses.



## 이건 불법? (3)

학생용 활동 자료 4

\_\_\_\_\_ 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_\_\_\_\_

희망이와 승리가 자신들의 미니홈피에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올려놓은 것은 불법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 주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함께 적어 보세요.

희망이와 승리는 요즘 새로운 즐거움에 푹 빠져있다. 둘만의 미니홈피 꾸미기!! 다른 친구들에게도 두루두루 홍보하여 많은 친구들이 희망이와 승리의 미니 홈피를 방문하고 있다. 두 친구의 미니 홈피의 자랑거리는 뭐니뭐니해도 음악이 넘친다는 점! 평소에도 음악을 좋아하고, 특히 가수 '폭풍'과 그룹 '전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치밀한 정보 조사까지 마친 그 둘의 자료가 합쳐진 방이니 어찌 대단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희망이와 승리의 미니홈피를 방문했던 한 친구가 방명록에 이런 글을 남겼다.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 완전히 펴므로 도배를 했네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폭풍' 오빠가 알면, '전설' 멤버들이 알면 얼마나 실망이 클까?

따라가는 사람 : 맞아, 맞아. 게다가 이건 불법이라고!!!

희망이와 승리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세상에, 다른 세상에서 왔나 봐. 요즘 펴 아닌 홈피, 블로그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그리고 이건 가수 '폭풍'과 그룹 '전설'에 대한 사랑의 결실이라고. 그들의 노래를 좋아하니까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싶은 거야. 그게 뭐가 나빠?

Blank writing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for student response.



# 저작권 관련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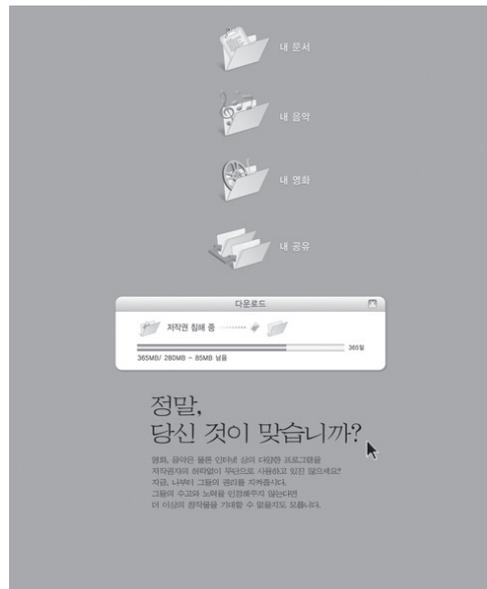
제공 : KT 문화재단



제공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 한국방송광고공사



## 이건 불법? (1, 2, 3)에 대한 해설

### ▶ 희망이가 승리에게 선물한 CD는 불법인가요?

희망이는 매우 사적인 경로를 통하여, 그리고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단 한 부만을 복제하여 승리에게 선물하였다. 음반의 복제는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에 속하지만, 이 정도는 사적 이용에 해당되어 허용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명(반 친구 전체)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안 된다.

### ▶ 학교 구내 방송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음악을 방송하는 경우에 권리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학교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구내 방송을 통해 학생들에게 음악을 듣게 할 수 있다. 비록 일반적으로는 구내 방송이라고 불리지만 저작권법은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에 의한 것을 공연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한다. 그리고 비록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구내 방송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교육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의 공연이나 방송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에게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발행한지 6개월이 넘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학교에서의 구내 방송은 이에 해당되어서 안 된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음악을(구체적으로는 음반을 재생하여) 학교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sup>16)</sup>

### ▶ 희망이와 승리가 자신들의 미니홈피에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올려놓은 것은 불법인가요?

학생들 가운데에는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려놓는 이들이 더러 있지만, 이것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사적 이용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사적 공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된 열린 공간이므로, 여기에 올려놓은 음악은 결국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방문자 모두와 공유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저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16) 임원선, 「(개정)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p.229.

“선영이 누나에게 사랑으로 구워 준 MP3 CD. 그거 불법 아냐?”

Q

내가 구입한 음악CD 중에서 좋아하는 곡만 골라서 MP3로 만든 후, 여자친구에게 CD로 구워 선물했어. 이거 법에 걸려?

A

아마 괜찮을거야. 개인적인 용도로 한 두 사람에게 구워 판다거나 익명의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래.



Lawful Tip  
이런 건 불법이야 아니야?